

제2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심사총평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에는 문화정책, 공연예술, 지역문화 예술교육, 문화정보,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산업, 공공미술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응모가 이루어졌다. 외부 심사위원 4명, 예술위원회 내부 심사위원 2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1차 심사(서면 자격 심사), 2차 심사(2012.9.24~10.30 위원별 내용심사, 접수 집계 및 최종 심사대상 2배수 논문 확정), 3차 심사(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 최종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상작 확정)를 진행하여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응모한 논문들은 문화예술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관짓거나, 게임, 웹툰, 비주류 문화, 인디음악 등을 주제로 하는 등 문화예술의 융·복합과 범위 확장이라는 시대적 추이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논문의 수준에 있어서는 유려한 문체와 함께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나무랄 데 없는 결론에 도달한 논문이 있는가 하면, 남의 글이나 인터넷에 공시된 글을 문단 단위로 연속 인용하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만 자기 의견을 조금 보태는 식의 짜깁기 수준의 논문도 몇 편 있어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아쉽게도 공모 주제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적 제안에 충실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융·복합 예술시대에 저비용으로 장르적 장애를 뛰어 넘어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논문도 있었고,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인 차원에서 구체화한 논문도 있었다. 한편 본 공모전이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분야 정책 논문을 공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술평론에 해당하는 글도 간혹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공연예술분야에 적용해 본 논문, 나아가 철저히 사회과학적인 조사방법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효용성,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한 논문도 있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상 수상작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Google)의 책 디지털화 사업인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관련 소송문제를 이슈별로 자세히 다루면서, 동 프로젝트가 몇 가지 차원에서 공공 문화예술의 유지와 향유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밝히고, 디지털문화콘텐츠 가치 산정에 대한 국가적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 작업에 따른 저작권 문제나 공유 방식의 문제 등을 쟁점화 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구글의 opt-out라는 정책에 의해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구글의 북 프로젝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인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문장의 짜임새가 다소 떨어진 점은 이 논문의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된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12년 11월 5일

심사위원장 오 양 열 

심사위원 : 박신의, 오양열, 이용관, 이용진, 이용훈, 황국성
(가나다 순)